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TORY

창세기 22 주차 (창 17:19-18:21)

(2016년 5월 15일 - 2016년 5월 21일)

(제4권 22호)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SCRIP+DRY 제 4 권 - 제 22 호

창간일: 2014년 11월 2일

발간일: 2016년 5월 15일

발행처:  B2B Missions,
800 Roosevelt, Irvine, CA 92620
www.b2bm.org

인용성경

한글성경: 대한 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개역개정

헬라이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Greek New Testament 4th edition (1993)

히브리어 성경: Deutsche Bibelgesellschaft, D-Stuttgart 에서 출간한
BIBLIA HEBRAICA STUTTGARTENSIA (1997)

번역 및 해설

편집책임: Steve Kim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D.Min Program, Talbot School of Theology)

편집위원: Sean Roh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Gordon-Conwell Theological Seminary)

Charlie Cho (M.Div, Talbot School of Theology; Th.M, Talbot School of Theology)

이 큐티 자료는 회원 여러분들의 작은 정성으로 만들어 집니다. 여러분의 작은 정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파하는 힘이 됩니다. 일주일에 1 볼 (한국 약 1000 원) 이상 자유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동참을 원하시는 분은 B2B Missions 의 홈페이지 (www.b2bm.org) 를 방문하셔서 회원으로 가입해 주십시오.

이 책에 수록된 원어해석과 해설에는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한 해석에 대한 아이디어를 갖고 계시는 분들은 의견을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회원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Copyright © 2016 by B2B Missions. All rights reserved. (이 책은 저자의 고유한 아이디어를 담고 있습니다. 이 책의 내용의 인용 또는 전제시 반드시 B2B Missions 또는 저자의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아내 사랑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주일)

오늘의 본문 (창 17:19~22)

- (19 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אֱלֹהִים)
 아니다. 너의 아내 사랑가 너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אָבְלָה שָׂרָה אֲשֶׁרָה לְיָדָת לָךְ בֵּן)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וַקְרָאתָ אֶת־שְׁמוֹ יִצְחָק)
 나는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וַיִּקְרַמְתִּי אֶת־בְּרִיתִי אִתּוֹ)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לְבְרִית עוֹלָם לְוָרְעוֹ אֲתָרְיוֹ)
 (20 절)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וְלִישְׁמַעְאֵל שָׁמַעְתִּיךָ)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הִנֵּה בְרַכְתִּי אֹתוֹ)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וְהִפְרִיתִי אֹתוֹ)
 내가 그를 매우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וְהִרְבִּיתִי אֹתוֹ בְּמֵאד מְאֹד)
 그가 12 왕자를 낳을 것이다. (שְׁנַיִם־עָשָׂר נָשִׂיָאִם יוֹלִיד)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וַיִּתְמַיֵּן לְגוֹי גָּדוֹל)
 (21 절) 그러나 나는 나의 언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וְאֶת־בְּרִיתִי אֶקְיִם אֶת־יִצְחָק)
 1년 뒤 이 시기에 사랑가 너에게 낳을 아이인,
 (אֲשֶׁר תֵּלֵד לָךְ שָׂרָה לְמוֹעֵד הַזֶּה בְּשָׁנָה הָאַחַרָּת)
 (22 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치시고, 아브라함으로부터 떠나 올라가셨습니다.
 (וַיֵּכַל לְדַבֵּר אֲתָו וַיַּעַל אֱלֹהִים מֵעַל אַבְרָהָם)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는 아브라함의 말은 진심이다. 하나님의 언약에만 매달려 기약없이 자식을 기다리는 것도 이젠 지쳤다. 알다시피 하나님은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실 때마다 후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나 약속은 말뿐이고 실제로 바뀐 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같은 자리만 맴돌다가 무심하게 세월만 흘렀다. 이제는 몸의 기력마저 예전 같지 않고 쇠했다. 사라의 상태는 더 절망적이다. 생리가 끊긴지도 이미 오래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다시 자식 얘기를 꺼내셨다. 그 약속은 일말의 가능성조차 없어 보인다. 아브라함은 지쳤고 더는 기대를 하고 싶지 않았다. 그저 지금처럼만 살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면 그만이라 생각했을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체념적인 말에 하나님은 매우 단호하게 반응하신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아발’ (אָבְלָה) 이라고 말씀하신다. 여기에 쓰인 히브리어 ‘아발’ (אָבְלָה)은 원래 ‘진실로’라는 뜻인데 이 말이 부정어로 쓰일 때에는 매우 강하고 단호한 부정의 의미를 가진다. 이 말은 ‘결코 아니다’라는 뜻이다. 털끝만큼의 타협의 여지도 없다는 뜻이다. 하나님은 이 말씀 한마디로 아브라함의 입을 단아버리셨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보자.

“아니다. 네 아내 사라가 네 아들을 낳을 것이다. 너는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나는 그의 자손을 향한 영원한 언약으로서 그와 나의 언약을 세울 것이다.” (19 절).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고 단호했다.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하나님은 바로 그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부터 사라를 통해 아들을 줄 것을 예정해 놓으셨고 지금까지 인내하며 때를 기다리고 계셨다. 이런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 도리가 없는 아브라함은 조바심이 났고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을 좇아갔다. 그 과정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다. 비록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통해 낳은 아들은 아니지만 엄연히 자신의 핏줄을 이어받은 아들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아브라함의 생각과는 한참 달랐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아전인수로 해석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다.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나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는 아브라함이나 도킨 개긴이다.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손이라고 믿고 있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인간이 만들어 낸 육신의 자녀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해도 그것은 아브라함의 개인적인 생각일 뿐이다.

성경은 인간의 노력으로 만들어 낸 것을 육신의 열매라 한다. 육신의 열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행위를 통해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 낸 열매다. 육신의 열매가 단지 세상에서 방탕하게 사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율법을 통해 자신의 의를 입증해 내려는 인간들의 애씀 또한 육신의 열매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이스마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갈 4:21~22).

아브라함은 육체를 따라 난 아들 이스마엘을 적자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기에 지금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언약의 자녀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자니 그동안 애지중지 키워온 이스마엘이 눈에 밟혔다.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 그래서 이삭을 적자로 주는 대신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고 확약하신다.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므로 보라 내가 그에게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그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심히 번성하게 할 것이다. 그가 열두 왕자를 낳을 것이다.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20 절).

이스마엘은 더 이상 아브라함이 고민할 대상이 아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무관하게 저질러 놓은 일을 하나님이 책임지겠다고 하신다. 언약과는 상관없이 생긴 육신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은 그의 삶도 책임지신다. 이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했다는 것은 그의 인생 전부를 책임지시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 책임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지 않게 하고 윤택한 삶을 누리게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책임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은 더 이상 이스마엘에게 집착하지 말고 언약과 그 언약의 자손인 이삭에게 집중하라는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하며 살기를 원하셨다.

이제 아브라함은 자기 손에 쥐어진 현재의 아들 이스마엘을 포기하고 아직 그의 손에 잡히지도 않는 미래의 아들을 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도 비관적이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선택이나 그의 신념과는 무관하게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기에 그분이 이행하실 것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현실을 버리고 다시 불확실한 미래를 택해야 하는 아브라함은 맘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어떠한 선택권도 없다.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든 따르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뜻대로 이루실 것이다. 그것이 언약이다.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자. 이미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는 좋은 것을 내려 놓고 불확실한 미래를 선택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찌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가? 지금까지 삶을 냉정하게 돌아보라. 매번 우리는 현실적이고 구체적이며 이해되는 것들만 선택하지는 않았는가? 하지만 걱정하지 마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잘 알고 계신다. 설령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뜻 가운데에서 머뭇거리더라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묵묵히 이행해 가신다. 우리들의 개인적 소신이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우리는 결국 그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 삶에서 행하시는 그분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자신의 뜻을 내려 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었나요? 혹시 당신이 그렇게 하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까?

아브라함이 아흔 아홉에 할례를 받다 (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7:23~27)

- (23 절)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의 집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사람, 즉 아브라함의 집에 있는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וַיִּקַּח אַבְרָהָם אֶת־יִשְׁמָעֵאל בְּנוֹ וְאֶת כָּל־יְלֵדֵי בֵיתוֹ וְאֶת כָּל־מִקְנַת כֶּסֶף וְכָל־זָכָר בְּאֹנְשֵׁי בֵית אַבְרָהָם)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바에 따라 바로 그 날, 그는 그들의 포피를 베었습니다.
 (וַיִּמַּל אֶת־בְּשָׂר עֶרְלָתָם בְּעֶצְם הַיּוֹם הַזֶּה כַּאֲשֶׁר דִּבֶּר אֱלֹהִים)
- (24 절) 아브라함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99 세였습니다.
 (וְאַבְרָהָם בֶּן־תְּשַׁע וְתֵשַׁע וְשָׁנָה בְּהַמְלוֹ בְּשָׂר עֶרְלָתוֹ)
- (25 절) 그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의 포피를 베었을 때, 그는 13 세였습니다.
 (וַיִּשְׁמָעֵאל בְּנוֹ בֶּן־שְׁלֹשׁ עָשָׂר שָׁנָה בְּהַמְלוֹ אֶת בְּשָׂר עֶרְלָתוֹ)
- (26 절) 바로 그 날에,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בְּעֶצְם הַיּוֹם הַזֶּה נִמּוּל אַבְרָהָם)
 그의 아들 이스마엘도 받았습니다. (וַיִּשְׁמָעֵאל בְּנוֹ)
- (27 절) 그의 집의 모든 남자들, 즉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은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וְכָל־אֹנְשֵׁי בֵיתוֹ יְלִידֵי בֵית וּמִקְנַת־כֶּסֶף מֵאֵת כְּנָנִיךְ נִמְלוּ אִתּוֹ)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후손에 대한 언약을 선포하셨다. 그런데 이번 약속은 그 전과는 달리 매우 구체적이다.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는 황당하고 막연한 언약이 아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아브라함에게 한 언약들은 사실 그 내용이 애매모호하고 막연했다. 인간들도 그런 식의 계약은 하지 않는다. 아들을 주시겠다는 약속 외에는 아무 것도 구체화된 게 없다.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 주시겠다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다. 내년 이맘때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줄 것이고 그 아들이 언약의 자손이 될 것이라고 시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못박고 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로 개명해주시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하셨다. 그것이 약속의 아들을 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라를 사라로 개명하셨다. 각각의 이름에 히브리어 자음 한 개를 추가했는데 그 글자가 ‘헤’(ה)다. 이 글자는 은혜, 생기라는 뜻으로 이 글자를 추가함으로써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버가 되었고, 사라는 여주인이 되었다. 단지 이름의 뜻이나 좀 더 좋게 하려고 ‘헤’라는 철자를 넣으셨을까? 히브리어 이름에 ‘헤’가 붙으면 여성성을 나타내는 동시에 방향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람은 히브리어로 아담이고 흙은 ‘아다마’다. 사람(아담)이 흙(아다마)으로 지어졌는데 말 그대로 사람은 흙에서 왔으므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아담 뒤에 ‘헤’가 추가된 것이다. 또 다른 예를 들면, 아담이 자신의 갈빗대로 만든 여자를 보고 ‘잇사’라고 불렀다. 남자라는 단어 ‘잇스’에 ‘헤’라는 글자를 추가함으로써 남자가 여자에게로 향한다는 의미가 된다.

하나님이 아브람과 사라의 이름에 ‘헤’를 추가한 것도 같은 이유다. 둘 모두에게 ‘헤’가 들어 있으니 그들이 종착역인 셈이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무엇이 나와 이들에게 향한다는 말인가? 언약의 주인공

이 하나님이니 하나님께로부터 생명과 은혜가 나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로 향한다는 말이 된다. 결국 아브라함이나 사라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생명이 잉태되고 아들이 주어진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약속의 자녀는 아브라함의 능력도, 사라의 능력도 아닌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주어진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낳는데 기여한 것은 눈곱만큼도 없다.

아브라함에게는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 자신의 생식 능력 때문이 아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뒤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하여 여섯 명의 아들을 낳았다(창 25 장 참조).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이유는 불임인 아내 사라 때문이다. 할례는 이런 아브라함에게 오직 은혜로 후손을 얻게 하겠다는 표식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아브라함은 즉시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단지 남자 생식기의 포피를 베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하겠다는 말이다. 할례는 자식의 출생이 인간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달려있음을 고백하는 행위다. 할례는 약속의 자녀라는 표시다. 이는 자신의 배후에 하나님의 힘과 권력이 있다는 식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 순간도 살 수 없는 자라는 자기 실존에 관한 고백이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할례를 명한 당일에 할례를 행했다. 할례는 아브라함 한 사람만이 아니라 그에게 속한 남자들 모두가 다 할례를 받아야 했다. 아들 이스마엘은 물론 그 집에서 태어난 자들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사온 자들도 예외 없이 모두 할례를 받았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는데 할례가 언약의 표시라고 해서 할례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언약 자손이 되는 건 아니라는 점이다. 예수님 당시 많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라 생각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조차 그런 생각이 뿌리 깊이 박혀 있었다. 그래서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에게도 할례를 강요했다. 그런 이유로 할례가 교회 전체의 신앙을 흔든 적도 있었다. 그 중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대표적이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할례를 율법주의의 상징으로 생각하고는 다음과 같은 강력한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했다.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는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갈 5:3-6).

오늘날 우리는 할례 문제로부터 자유로운가? 직접적인 할례를 요구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수많은 변형된 형태의 할례를 내세워 언약 백성임을 입증하도록 요구한다. 여러 가지 성령의 은사들, 십일조, 주일성수 등을 자녀 됨의 증거로 생각하는 분들도 비밀비재하다. 그러나 이런 은사나 행위가 하나님 자녀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증거는 오직 하나뿐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예수님, 장사한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할례를 받은 사람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이 받은 할례는 무엇입니까? 당신에게는 할례의 흔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찾으실 때 (화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8)

- (1 절)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וַיֵּרָא אֵלָיו יְהוָה בְּאַלְנֵי מַמְרֵא)
그는 하루 중 더운 때 장막의 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וְהוּא יָשָׁב בְּפֶתַח הָאֹהֶל בְּחֹם הַיּוֹם)
- (2 절) 그가 눈을 들어 보았더니, 그의 맞은 편에 서 있는 3 명의 남자가 있었습니다.
(וַיֵּשָׂא עֵינָיו וַיֵּרָא וְהִנֵּה שְׁלֹשָׁה אַנְשִׁים אֹנְכִים נֹצְבִים עָלָיו)
그는 그들을 보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장막의 문에서 달려나갔고, 땅에 몸을 굽혔습니다.
(וַיֵּרָא וַיָּרֶץ לְקִרְאתָם מִפֶּתַח הָאֹהֶל וַיִּשְׁתַּחוּ אֶרְצָה)
- (3 절) 그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발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אֲדֹנָי אֱמִי אֵלֹהֵי אֲבִיךָ אֲלֵנָּא מַעַבְרָ מֵעַל עֵבְרֶךָ)
- (4 절) 물을 조금 가져올 것이니, (וַתִּחַן אֲמַט־מַיִם)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וַתִּחַץ רִגְלֵיכֶם)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וְהוֹשַׁעְנוּ תַּחַת הָעֵץ)
- (5 절) 제가 떡을 조금 가져오겠으니, (וְאֶקְחָה פֶתַח־לֶחֶם)
당신들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וְסֻעְדוּ לְבָבְכֶם אַחַר תַּעֲבְרוּ)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כִּי־עַל־כֵּן עָבַרְתֶּם עַל־עַבְדְּכֶם)
그들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하라. (כִּן תַּעֲשֶׂה כְאֲשֶׁר דִּבַּרְתָּ)
- (6 절) 아브라함이 급하게 장막 안에 있는 사라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וַיִּמְהַר אַבְרָהָם הָאֹהֶלָה אֶל־שָׂרָה וַיֹּאמֶר)
속히 고운 가루 3 스아로 반죽하고 떡을 만들어라.
(מִהָרִי שֵׁלֶשׁ סָאִים קִמַּח סֹלֶת לוּשִׁי וַעֲשֵׂי עֻגוֹת)
- (7 절) 또한 아브라함은 가축에게 달려갔습니다. (וְאֶל־הַבָּקָר רָץ אַבְרָהָם)
그는 부드럽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하인에게 주었습니다.
(וַיִּקַּח בָּן־בָּקָר רַךְ וְטוֹב וַיִּתֵּן אֶל־הַנְּעָר)
- (8 절) 아브라함은 버터와 우유와 요리된 송아지를 가져다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וַיִּקַּח חֶמְצָה וְחֵלֶב וְגוֹבֵה־בָּקָר אֲשֶׁר עָשָׂה וַיִּתֵּן לַפְּנֵיהֶם)
아브라함은 나무 아래 있는 그들 앞에서 있었고, 그들은 먹었습니다.
(וְהוּא־עֹמֵד עֲלֵיהֶם תַּחַת הָעֵץ וַיֹּאכְלוּ)

목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다시 찾아 오셨다. 18 장과 19 장 말씀으로 미루어 짐작해 볼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아브라함과 한 언약을 재확인하기 위해서다. 바로 사라가 임신할 것이며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거라고 알려주기 위해 오셨다. 다른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두 가지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심판이다. 아이를 낳을 능력을 이미 상실한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신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반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을 받아 멸망했다. 하나님의 심판은 거침없었고 무자비했다. 이 과정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 받았지만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이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20년 이상 살던 땅을 잠깐 되돌아본 것이 소금 기둥이 되어 할 정도로 엄청난 잘못이었는데? 여하튼 그 심판 가운데 은혜를 받은 세 명이 있었다. 바로 롯과 그의 두 딸이다. 그들은 가까스로 심판을 면했다. 하나님은 그 와중에 롯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 이유는 물론 아브라함 때문이다. 18 장과 19 장은 하나의 이야기로 읽어야 한다. 구약학자 케네스 메튜스는 그의 주석에서 이 전체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명한다.

- A: 하나님의 일행이 이삭의 탄생을 예고하다 (18:1~15)
- B: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과 롯의 구원 (18:16~19:29)
- C: 롯의 아들 모압과 벤암미의 탄생 (19:30~38)

위와 같은 전체 구조를 염두에 두고 오늘의 본문으로 들어가보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다양한 형태로 스스로를 계시하시는데 이번에는 인간의 모습과 인간의 성정을 가진 존재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대동하고 오셨는데 그들 역시도 인간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았을 때 아브라함은 장막 문 앞에 앉아 있었다. 때는 뜨거운 한낮이었다. 여기서 대조되는 광경 하나를 미리 이야기 해야겠다. 바로 롯이 천사를 만나는 광경인데 먼저 그 두 사람이 이들을 맞이한 장소부터 살펴 보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에게 대접을 받은 후 떠나가 소돔성에 다다랐을 때 롯은 소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이들을 맞이했다. 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장막 문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맞이했다. 아브라함이 살던 장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거주했던 장막과 같은 것으로 성막을 뜻하는 ‘오헤르’ (אֹהֶל)와 같은 단어다. 물론 모든 장막을 ‘오헤르’라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장막에 특별한 의미를 두는 것에 주저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장막에 거하게 한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는 나그네라는 정체성을 갖게 하기 위해 그리하신 것이다. 광야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일어나 가시면 그들도 자기들이 친 장막과 성막 모두를 다 갖고 거처를 옮겨야 했다. 하나님이 멈추면 그들은 그 자리에 다시 장막을 쳤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각 지파별로 동서남북에 정해진 위치에 장막을 쳤다. 따라서 성막은 모든 장막들의 중심에 있는 장막인 셈이다.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산 것도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 아브라함도 그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갔으니 말이다. 아브라함은 나그네를 상징하는 바로 그 장막 앞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 일행을 맞이했다.

반면에 도시는 인간 욕망의 총화다. 도시는 그 자체로 사람들을 불러 모은다. 한번 도시로 들어간 사람들은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곳으로부터 빠져 나올 수 없다. 도시로 들어간 사람들은 그속에 사는 사람들처럼 욕망을 쫓아가기 십상이고 불행하게도 어느새 그 욕망의 노예가 된다. 가인은 스스로를 보

호하기 위해 도시를 만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눈부신 물질 문명을 꽃피웠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하였다. 그런 점에서 바벨은 인간 욕망의 절정을 보여준다. 홍수 심판 후에도 인간들은 여전히 모여서 성을 만들었다. 그들은 도시를 만들고 사는 것 정도로 만족하지 않았다. 탑을 만들어 하늘에까지 이르려 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했고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 자기 이름을 내고자 했다. 도시는 그런 곳이다. 도시는 하나님을 잊게 하고 마침내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공간이 되어간다. 적어도 창세기에 나오는 성들은 그런 의미를 가진다. 롯은 아브라함과 달리 바로 인간 욕망의 총화인 그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천사들을 맞이했다.

아브라함과 롯의 대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하나님 일행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과 롯을 찾은 시기도 매우 의미심장하다. 하나님 일행은 하루 중 가장 더운 때에 아브라함을 찾았다. 낮은 인간이 활동하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의 시간이기도 하다. 특별히 성경에서 낮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이 하루 중 제일 더운 때에 나타나셨다는 말은 아브라함의 정체성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는 낮에 속한 자고 빛의 자녀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하나님의 두 천사가 롯을 찾아간 때는 저녁 무렵이었다. 낮이 가고 밤이 다가오고 있는 시간이다. 그리고 천사들이 롯의 집에서 식사를 끝내고 자러 들어가던 때는 이미 밤이었다. 그런데 그 밤에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으로 몰려와 소동을 부렸다. 이는 소돔 사람들이 밤에 속한 자고 어둠의 자녀들이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아브라함과 롯의 상반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신앙인으로서 각자의 정체성을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 세상이 전부인양 생각하며 이 세상의 풍요를 얻기 위해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다면 어쩌면 당신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성을 쌓고 욕망을 따르는 도시인일지도 모른다. 익숙하고 풍요로워 보이는 세상의 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은 쉽지 않다. 롯은 하나님이 그 삶의 터전을 완전히 파괴하고 나서야 소돔을 떠날 수 있었다. 당신은 어디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막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치열한 도시의 삶 가운데에서 생존을 위해 스스로의 능력을 극대화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모든 그리스도인은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는 낮에 속한 사람이다. 당신은 정말 낮에 속해 자신을 찾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기뻐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둠이 내리는 도시의 문 앞에서 치킨 몸을 기대고 앉아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지금 당신에게 오신다면 당신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하나님을 맞을 것인가?

목상을 위한 질문

당신은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까? 나그네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8)

하나님 일행이 인간의 몸을 입고 아브라함에게 모습을 드러냈다. 아브라함은 장막 앞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는 한낮의 무더위를 피하기 위해 상수리 나무 아래에 장막을 치고 지냈다. 일상의 고단한 몸을 달래며 앉아서 쉬고 있던 그는 인기척에 고개를 들었다. 낮선 사람 셋이 맞은 편에서 있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은 그들이 하나님 일행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 보았다. 얼마 전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아들을 주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식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는 곧바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들 앞으로 달려나가 땅에 엎드렸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다음과 같이 간청을 한다.

“내 주여, 내가 당신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였다면, 제발 당신의 종을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을 조금 가져 올 것이니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을 조금 가져 오겠으니 당신들의 기운을 차리고 난 후에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당신들이 당신들의 종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창 18:3-5).

아브라함은 하나님 일행에게 간청한다. 아브라함의 말은 지극히 인간적이다. 하나님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들을 늘어 놓는다. 물로 발을 씻으라는 것도 그렇고, 나무 아래서 쉬시라는 것도 그렇다. 더군다나 먹고 기운을 차리라는 말은 하나님께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표현들은 우리에게 매우 친숙하게 들린다. 사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기 위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인간의 몸을 입었다는 것은 전능과 위엄의 모습으로 인간을 제압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은 눈높이를 견지하시겠다는 뜻이다. 어느 인간과 똑같이, 먼 길을 걸어오느라 발은 흙투성이고 성경엔 기록돼 있지 않지만 아마도 대낮의 더위로 온 몸이 땀으로 범벅이 돼 있었을 지도 모른다. 아브라함의 눈에 비친 하나님 일행의 모습은 자신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영락없는 인간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아들 하나님이다. 그런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 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을까? 신학적으로 생각하면 답은 간단하다. 인간이 죄를 지었고, 그 결과 인간이 심판을 받아야 했다.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는 죄 없는 대속 제물이 있어야 했다. 양이나 송아지의 피는 인간의 죄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 인간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 대신 죽어야 하는데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은 다 틀이 틀 대속할 수 없다. 모두가 죄인이므로 대속 제물로서 하자가 있기 때문이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흠 없는 다른 인간이 필요했다. 그런 이유로 아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인 다른 인간들을 위한 대속제물이 되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능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하는가에 대한 신학적 설명이다. 그런데 이런 해석은 맞는 말이긴 해도 이론에만 치우친 나머지 너무 무미건조하다.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단지 그것 때문만일까?

예수님은 공생애 기간 동안 많은 이적을 행하고 가르침을 주셨다. 그러나 그런 이적이거나 가르침만이 그가 보여준 삶의 전부가 아니었다. 광야에서 사십 일을 굶주리며 고난을 자처하셨으며, 그러한 고난 가운데에서도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시기도 했다. 오라비의 죽음 앞에 낙망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를 보며 함께 슬퍼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고 삶에 지치고 소망이 없는 사 마리아 여인에게는 긴 여행길에 지친 한 나그네의 모습으로 다가가기도 했다. 예수님은 오직 죄인인 우리를 대속하여 천국 백성으로 삼으려는 목적 하나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동행하기 위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 절망 가운데 울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가와 함께 조용히 눈물 흘려주는 분, 삶에 지쳐 쓰러져 있는 사람들 곁에 다가와 말없이 그 손을 잡아 주는 분이 예수님이다. 복음의 메시지를 깨닫고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이들 앞에 서서 그 찬양을 인도하는 분이 그분이다. 예수님은 우는 자들에게 울지 말라고 하고 기뻐하는 자들에게 기뻐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지 않는다. 그분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시는 분이다. 그렇기에 우리의 믿음은 살아계셔서 나와 동행하는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체험이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 속에 간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며 우리의 감성을 어루만지시는 역동적인 그분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아브라함이 발견한 것은 홍수 심판을 앞두고 노아가 하나님의 눈에서 발견한 바로 그것과 똑같은 은혜이다. 은혜를 발견했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자격 있는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다. 오히려 다른 이들에 비해 아브라함이 자격 없는 자임을 고백하는 말이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자기 고백이다. 아브라함은 99세까지 평생을 자기 능력에 기대어 살고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늘 자기 계획대로 살아왔다. 기근이 닥치자 이집트로 내려간 것도 그렇고 이집트에서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고 속여 바로에게 팔기까지 했다. 그리고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한 거짓말이 들통이나 결국은 이집트에서 쫓겨나고 만다. 전쟁 통에 룯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는 단까지 쫓아가 룯을 찾아왔다. 10년을 기다려도 아들이 없자 하갈로부터 이스마엘을 낳는다. 지금까지의 삶에서 아브라함이 보여 준 것은 뭐든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나이까지 들어 모든 일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는다. 조금만 일을 해도 이내 지쳐 그늘을 찾게 되고 조금만 앉아 있어도 나른해져 눈꺼풀이 천근만근이다. 이제야 아브라함은 깨닫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자신은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의 삶은 어떤가? 아직도 스스로의 힘으로 무엇인가 이루어 내려고 하지는 않는가? 정말이지 쉼 빠지게 노력해서 겨우나마 자신의 신앙을 입증하고 있지는 않은가? 아니면 자신의 열심으로 이룬 것들을 한 가득 나열하여 하나님께 제출하고도 점수가 모자랄까봐 조마조마하고 있지는 않은가?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강도 만난 인생이고 상처투성이 인생일 수 있다. 이미 상처가 흉터로 영원히 각인되어 어떤 성형 수술로도 지울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수도 있다. 바로 이 때가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다. 하나님의 눈에는 단 두음 절만 기록되어 있다. ‘은혜’다. 하나님은 지친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며 말씀하신다. “괜찮다... 그러니 너무 애쓰지 마라!”

목상을 위한 질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겸손한 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까? 그분은 당신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요? 당신은 그분에게서 진정한 은혜를 발견하셨나요? 그 사실이 당신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행을 영접하다 (수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9~15)

- (9 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וַיֹּאמְרוּ אֵלָיו) 너의 아내 사라는 어디에 있느냐? (אַיִה שָׂרָה אֲשֶׁתְּךָ)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וַיֹּאמֶר) 그녀는 장막 안에 있습니다. (הִנֵּה בְּאֶהֱלִי)
- (10 절) 그(여호와)가 말했습니다. (וַיֹּאמֶר) 내가 반드시 너에게 1년 뒤에 돌아올 것이다. (שׁוֹב אָשׁוּב אֵלֶיךָ כְּעֵת חַיָּה)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וְהִנֵּה־כֵּן לְשָׂרָה אֲשֶׁתְּךָ) 사라는 그 뒤에 있는 장막 문에서 듣고 있었습니다. (וּשָׂרָה שָׁמְעַת פֶּתַח הָאֵהֱלָ וְהוּא אֲחֵרָיו)
- (11 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습니다. (וַאֲבָרְהָם וְשָׂרָה זְקֵנִים בְּאִיִּם בְּיָמֵים) 사라의 생리는 끊어졌습니다. (חֲדַל לְהֵיוֹת לְשָׂרָה אֶרֶחַ כְּנָשִׁים)
- (12 절) 사라는 속으로 웃으며 말했습니다. (וַתִּצְחַק שָׂרָה בְּקִרְבָּהּ לֵאמֹר) 내가 노쇠한 이후에 (אַחֲרַי כְּלֵתִי) 내가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הֵיחֲתִילִי עֲדֻנָּה) 내 주인도 늙었도다. (וְאֵדֹנָי זָקֵן)
- (13 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אֶל־אַבְרָהָם) 왜 사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느냐? (לָמָּה זֹאת צִחַקְתָּה שָׂרָה לֵאמֹר)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늙었다.” (הֲאֵפֶא אֲמַנָּם אֶלֶד וְאֲנִי זָקֵנָתִי)
- (14 절)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הֲיִפְלֵא מִיְהוָה דְּבָרָךְ)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לְמוֹעֵד אָשׁוּב אֵלֶיךָ)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כְּעֵת חַיָּה וּלְשָׂרָה בֵּן)
- (15 절) 사라가 부인하며 말했습니다. (וַתִּכְחַשׁ שָׂרָה לֵאמֹר) 나는 웃지 않았습다. (לֹא צִחַקְתִּי) 왜냐하면 그녀는 두려웠습니다. (כִּי יִרְאַהּ) 그러나 여호와는 말했습니다. (וַיֹּאמֶר) 아니다. 너는 웃었다. (לֹא כִּי צִחַקְתָּ)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아브라함에게 융숭한 대접을 받은 하나님 일행은 갑자기 사라를 찾았다. 사라는 그들을 위해 떡을 만 들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장막 안에 있었지만 하나님 일행과 아브라함이 주고 받는 말에 온통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하나님은 이런 사라의 일거수 일투족을 이미 다 보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물으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그녀가 장막 안에 있다고 대답했다.

하나님은 일 년 후에 반드시 돌아올 것이며 그 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 예언하신다.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약속을 이미 들은 상태다. 17장에서 하나님이 이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사라를 통해 이삭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다. 따라서 지금 이 말씀은 아바라함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사라를 향한 선포의 말씀이다.

사라가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 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다. 아마도 사라의 귀에 또렷이 들리도록 목소리의 톤을 더 높이셨을 지도 모른다. 그리고 한 마디 한 마디 또렷하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을 것이다.

“보라.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10 절).

사라는 장막 뒤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 사라는 기가 막혀 헛웃음만 나왔다. 도대체 하나님이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았다.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알고 있었다. 아마도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반응을 보인 걸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사라에게 전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을 지도 모른다. 여하튼 사라는 지금 이 순간 처음으로 이런 말씀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사라는 하나님이 이제 와서 늙은 자신을 놀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사라가 걸으려는 웃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치밀었을 수도 있다. 아브라함과 결혼한 후 아들을 낳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건만 그때는 아무런 응답도 없다가 이제 모든 소망이 사라지고 기력조차 쇠한 이 시점에 나타나서는 뜬금없이 아들을 주겠다고 하시니 화가 치밀 만도 할 것이다. 그래서 사라의 이 웃음은 허탈함을 넘어서 형언키 어려운 배신감까지 모두 포함된 웃음이다. 사라는 마음속으로 말했다.

“내가 노쇠한 이후에 무슨 즐거움을 가질 수 있겠는가? 내 주인도 늙었도다”(12 절).

그도 그럴 것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나이 많은 늙은이였다. 게다가 사라의 생리까지 끊긴지 오래된 몸이다. 당연히 자식을 낳을 가능성은 제로다. 이 세상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사라가 아들을 낳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니 사라의 이러한 생각을 선불리 믿음의 없다고 비판해서는 안 된다. 믿음은 맹목적인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이 실제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다.

우리들은 흔히 자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헷갈려 할 때가 있다. 처음엔 자신의 뜻을 놓고 그 뜻대로 해달라고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생각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확신하기에 이른다. 집안에 암환자가 있다고 가정해보자. 우연히 건강 진단을 받았는데 말기 암이고 암세포가 온 몸에 퍼져 수술도 불가능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고 치자. 그런 선고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 암울한 현실을 그 자리에서 당장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묵묵히 그분의 뜻을 따르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가 고난 당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매달릴 것이다. 필요하면 믿는 형제 자매들에게 알려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한다. 그렇게 기도해 매달리면서 점점 자기의 생각이 강화된다. 그래서 자기 뜻을 내려놓고 현실을 받아들이기보다는 하나님이 분명히 암을 극복하게 해주실 것이라 철석같이 믿는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암을 고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확정한다. 그러나 많은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킨다. 반드시 살아야 할 사람들인데 그와는 반대로 우리가 원치 않는 때에 데려가실 때가 많다. 하나님이 살려 주실 것을 믿고 기

도했지만 현실은 그 믿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것인가?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잘못되었을 뿐이다.

하나님은 한번 뜻을 세우시면 반드시 그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이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기로 확정하셨다. 하지만 아브라함과 사라의 믿음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오락가락했다. 지금 사라는 아들에 관한 모든 것을 포기한 상태다. 자신은 도저히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존재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모든 생물학적인 근거가 그 확신을 뒷받침하고 있으니 당연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이나 확신에 따라 휘둘리는 분이 아니다. 암환자가 그 암으로 인해 죽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의해 기적적으로 살아날 수도 있다. 그를 살려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맹목적으로 그분께 매달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의 뜻과는 상관없이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분의 신실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뜻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것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다.

사라의 경우는 인간의 합리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했다.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말씀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이없는 웃음으로 반응한 사라를 보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다.

“왜 사라가 웃으면서 ‘내가 정말 어떻게 아이를 낳는단 말인가? 나는 늙었다’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르면 내가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1년 뒤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13 절~14 절).

하나님의 이 말씀은 사라의 믿음 없음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다. 하나님은 사라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지 않겠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다. 사라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무력감에 빠져 자포자기 하든 말든 전혀 개의치 않는다. 그건 사라의 문제다. 하나님은 사람의 믿음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뜻을 반드시 행하신다. 사라의 어이없는 헛웃음에도 불구하고 1년 뒤에는 반드시 사라에게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약속은 십자가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다. 십자가는 언약의 증표이자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우리의 삶이 비록 원치 않는 길로 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진정한 은혜다.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의 그런 은혜의 손길을 느끼는 데 능력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그 사실이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나요? 당신이 원하는 것이 그분의 뜻인지 아닌지 당신은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과정에서 당신은 무엇을 배우고 있나요?

“내가 아브라함을 선택하였다” (금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6~21)

- (16 절) 그 사람들이 그곳에서 일어나 소돔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וַיִּקְמוּ מַשְׁמַחַם הַאֲנָשִׁים וַיִּשְׁקֹפוּ עַל-פְּנֵי סְדֹם)
 아브라함은 그들을 배웅하기 위해 그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וַאֲבְרָהָם הָלַךְ עִמָּם לְיִשְׁלָחִים)
- (17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הִי הָאָמֵר)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것인가?
 (הַמְכַסֶּה אֲנִי מֵאֲבְרָהָם אֲשֶׁר אֲנִי עֹשֶׂה)
- (18 절) 아브라함은 반드시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וַאֲבְרָהָם הָיָה יִקְרָא לְגוֹי גָדוֹל וְעַצוֹם)
 이 땅의 모든 나라들이 그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וַיְבָרְכוּ בּוֹ כָּל-גּוֹיֵי הָאָרֶץ)
- (19 절) 내가 그를 선택하였다. (כִּי יִדְעֵתִיו)
 그가 그의 자식과 그의 집안 사람들에게 명령하게 하기 위해서,
 (לְמַעַן אֲשֶׁר יִצְוֶה אֶת-בְּנָיו וְאֶת-בְּתוּלוֹת אֶתְרָיו)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명령을 하도록),
 (וַיִּשְׁמְרוּ דְרָךְ יְהוָה לַעֲשׂוֹת צְדָקָה וּמִשְׁפָּט)
 그래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לְמַעַן הִבִּיא יְהוָה עַל-אֲבְרָהָם אֶת אֲשֶׁר-דִּבֶּר עֲלָיו)
- (20 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וַיֹּאמֶר יְהוָה)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וַעֲקַת סְדֹם וְעֹמֶרָה כִּי-רַבָּה וַחֲטָאֹתָם כִּי כָבֵדָה מְאֹד)
- (21 절)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אֲרִדָּה-נָא וְאֶרְאֶה)
 과연 나에게 들려온 부르짖음 대로 그들이 멸망해가고 있는지,
 (הֲכַצְעָקְתָּהּ הַבָּאָה אֵלַי עָשׂוּ כְלָהּ)
 아니면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고 한다. (וְאִם-לֹא אֲדַע)

묵상을 위한 성경이야기

두 번의 반복되는 하나님의 언약 선포가 끝났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몸으로 아들을 낳아야 하는 사라에게도 하나님은 언약을 선포하셨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선포하신 하나님 일행은 일어섰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땅을 바라보았다. 과거에 롯이 부족한 목초지 문제로 인해 아브람과 헤어질 때 바라보았던 그 땅이다. 롯의 눈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에덴 동산 같고 이집트의 풍요로운 땅 처럼 보였다. 마침내 롯은 그곳을 향해 떠났다. 롯이 떠난 지 20여년이 훨씬 더 지난 시점에 롯이 서서 바라보던 그 자리에 하나님 일행이 서 계신다. 롯이 그 자리에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며 세상의 영광과 풍요를 꿈꾸었다면 하나님 일행은 심판과 멸망을 생각하고 계신다. 이제 그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가 이른 것이다. 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려 하셨을까? 소돔과 고모라 외에

Commented [JL1]:

다른 도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정도로 거룩했는가?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눈에 세상에서 제일 타락하고 죄로 오염된 곳이었을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그 땅을 멸망시키려는 이유는 단 하나, 롯 때문이다. 아니 엄밀히 말하면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야기는 아브라함에게서 다시 롯에게로 넘어간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실 것을 선포하신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는 창세기 18 장 16 절부터 19 장 19 절까지 이어지는 긴 이야기다. 케네스 메튜스는 이 소돔과 고모라와 롯 이야기를 다음과 같은 교차배열 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 A: 하나님 일행이 소돔을 바라 봄 (18:16)
- B: 아브라함과 소돔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18:17-21)
- C: 아브라함의 소돔을 위한 간청 (18:22-33)
-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에 도착함 (19:1-3)
- E: 천사들과 롯에 대한 소돔인들의 무례한 행동 (19:4-11)
- F: 소돔을 멸망을 선포함 (19:12-13)
- E: 롯의 사위들이 롯의 청을 거절함 (19:14)
- D: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을 떠남 (19:15-16)
- C: 롯이 소알로 가겠다고 간청함 (19:17-22)
- B: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함 (19:23-26)
- A: 아브라함이 소돔을 바라 봄 (19:27-28)
- 요약 (19:19)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구조를 잘 파악한다면 전체 이야기의 주제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위 구조에 따르면 대개의 경우 가장 가운데 부분이 핵심 주제이다.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에서 가장 가운데 위치한 부분은 소돔의 멸망이 선포되는 부분이다. 하나님의 선포는 그 자체로 불가역적이다. 절대로 취소되거나 바뀔 수 없다는 말이다. 하나님의 선포로 소돔과 고모라는 구원받을 기회를 영영 잃게 되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보자. 소돔을 향해 떠나는 하나님의 일행을 아브라함이 따라 나섰다. 하나님의 일행을 배웅하기 위해서다. 길을 걷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숨길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은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은혜와 둘째 부분은 소돔에 대한 심판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둘째, 의와 공도를 행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며 셋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 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로 하여금 위대하고 강한 나라가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하셨다.

이런 언약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몹시도 벅찼을 것이다. 그의 후손들이 살아갈 영광스러운 미래를 상상하며 만면에 미소를 짓지는 않았을까? 그런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이 세상의 삶에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보고 흥분하기에 앞서 그의 후손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어떻게 이행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각자의 현실에 문자 그대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어 노파심에 하는 말이다.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이 그 가족들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뒤, 그 후손들은 이집트의 총리였던 요셉이 죽은 후 사백여 년 동안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다. 이집트를 나온 그들은 곧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사십 년을 보낸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도 수백 년 동안 혼란스런 사사 시대를 보낸다. 그들이 영화를 누린 시기는 기껏해야 다윗과 솔로몬이 통치하던 시대로 고작 팔십 년 정도에 불과하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며 살았다는 증거는 매우 희박하다. 결국 앗시리아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바벨론 제국에 의해 남유다가 멸망한 후에는 그들이 이천 년간 나라를 회복하지 못했다. (물론 1948년에 이스라엘은 다시 나라가 회복되었다.) 그 과정에서 바벨론 포로기 이후부터 신약으로 넘어오는 중간기에 형성된 유대주의는 후에 메시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이 약속이 결코 이 세상에서의 번영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빈말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결국 그리스도 외에 다른 답을 찾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다. 더군다나 하나님도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는 분이였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분과 가까워졌다 (엡 2:11~13 참조).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던 우리가 약속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자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약속이다. 오직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땅에 그분의 나라가 세워져야 만 비로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할 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성취될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까? 만일 그렇다면 그 약속은 당신과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에게 그 약속은 어떻게 성취되고 있나요?

멸망해가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토요일)

오늘의 본문 (창 18:16~21)

이제 하나님은 화제를 아브라함에게서 소돔과 고모라로 돌리신다. 두 번째 오신 목적을 실행하시기 위해서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은 아브라함을 향한 말씀과 정반대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소돔과 고모라의 부르짖음이 크로 그들의 죄가 매우 무겁다. 내가 내려가서 보려고 한다. 과연 나에게 들려온 부르짖음대로 그들이 멸망해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알려고 한다”(20-21 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부르짖고 있는 외침을 들으셨다. 그들은 무엇을 외치고 어떻게 외쳐왔는가?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들으셨는가? 참고로, 한글 개역개정에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으로 번역되어 있다. 하지만 원문으로 보면 주어진 ‘부르짖음’이다. 물론 소돔과 고모라는 외치는 주체다.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아니고 ‘그들의’ 부르짖음이다. 소돔과 고모라가 하늘을 향해, 세상을 향해, 그리고 스스로를 향해 부르짖었다. 과연 그들이 부르짖은 것은 무엇일까?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부르짖었는지 우리는 알 도리가 없다. 다만, 오늘날 세상이 부르짖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 보면 그들의 부르짖음이 무엇이었는지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의 삶은 겉으로 드러나는 방식이나 문화는 바뀌어 가지만 인간 내면의 죄성은 아담 이래 지금까지 하나도 변한 게 없기 때문이다. 인간의 내면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망이 도사리고 있고 그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았다. 인간에게 있어 불변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내면의 욕망’이다. 인간의 욕망과 하나님의 은혜는 서로 대척점에 있다. 둘은 상호 공존할 수 없다. 상극이다.

인간의 욕망이 초래한 재앙에 관해서는 앞서 창세기 이야기를 통해 이미 살펴 보았다. 아담과 이브는 뱀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선악과에 눈을 돌리고 급기야는 그것을 따서 먹었다. 그 결과 그들은 이 땅에 선악 기준을 가지고 오는 대신 인류 전체를 하나님으로부터 떼어 놓았다. 그들의 첫 아들 가인은 질투심에 동생을 죽였다. 하나님의 절대 신임을 받는 아벨을 제거함으로써 유아독존의 지위를 누리려 했을지도 모른다. 살인을 저지르고 유리 방향하던 가인이 늦땅에 거하면서 첫 번째 한 일이 도시(성)를 만드는 일이었다. 나그네 인생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이 도시에 정착하면서부터 인간 욕망은 끓어오르는 용광로 같은 것을 만들었다. 그 성은 물질 문명의 시발점이자 토대가 되었지만 동시에 최악의 터전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호된 물 심판으로 단 여덟 명만 살아 남게 된 후에도 인류는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인간들은 시날 땅에 바벨이라는 도시를 만들고 그곳에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까지 이르려고 했다. 이처럼 기회만 있으면 호시탐탐 하나님과 대적하는 것이 인간이다.

욕망이란 그 끝이 없기에 붙여진 이름이다. 욕망은 하늘을 향한 대적의 외침으로 나타난다.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처럼 되려고 애를 쓴다. 욕망이 만들어 낸 산물들은 일견 아름답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며 인간들 눈에 선하게 보인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랬다. 유대인들은 율법으로 자신들의 의를 뽐내며 그렇지 못한 죄인들을 인간 이하로 취급하며 살았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 칭하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율법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고 가차없이 돌을 들어 죽였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묘사하셨다.

Commented [JL2]: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곧 그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옷술을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마 23:2-7).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죄악들만 욕망의 산물로 생각한다. 술 취하고, 간음하고, 분노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남들을 속이는 것이 일상이 되어버려 이런 것들만 욕망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분명 인간 욕망의 왜곡된 분출이다. 하지만 이에서 더 나아가 스스로를 이롭게 하려는 모든 행동들 또한 욕망의 산물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욕망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들의 정체를 다음과 같이 폭로하셨다.

“뱀들이 독사의 새끼들이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마 23:33).

그들이 악을 행했거나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서 이런 말을 퍼부으신 게 아니다. 그들이 뱀이 되고 독사의 새끼들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다(롬 10:3).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다. 물론 그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스스로 의로워지려는 의침은 아니다. 그들의 의침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는 모든 노력이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위치에 이르려는 욕망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로부터 나온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어떤 이들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에 때문에 망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너무 피상적인 해석이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죄악들은 비단 동성에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로 분출된다. 그들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으로 인해 스스로 멸망을 자초했다. 하나님은 멸망해 가는 그들의 모습을 확인하기만 하실 뿐이다.

우리의 삶은 어떠한가?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가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혹시 그들보다 나옴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늘을 향해 샅대질을 해대는 것은 단지 믿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만은 아니다. 소위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신의 의를 증명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한 구석으로 밀어 놓은 모든 사람들을 일컫는 말이기도 하다. 뱀이나 독사의 자식이라는 독설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 던진 말이 아니다. 세리를 지칭한 말도 아니다. 이 말은 다름 아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독설이다. 오랜 신앙 생활 동안 몸에 밴 의로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 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절실함, 그런 은혜로만 사는 자들이 성도들이다. 하나님을 향한 죄의 부르짖음은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의 분출인 것이다.

목상을 위한 질문

인간들이 가진 모든 욕망은 하나님처럼 되려는 교만을 지향합니다. 당신은 그 욕망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박고 진정 예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고 있나요?